

민천주보

제2865호

2025년 2월 2일 |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주안3동 성령 성당>, 1975년 설립

입당송 | 시편 48(47), 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 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말라 3, 1-4

화답송 | 시편 24(23), 7.8.9.10 (◎ 10ㄴㄷ)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제2독서 | 히브 2, 14-18

복음 환호송 | 루카 2, 32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 요한 2, 22-40 (또는 2, 22-32)

영성체송 | 루카 2, 30-31 참조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어느 늙은 예언자의 기도

시메온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의롭고 독실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때를 평생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시메온과 함께하였는데, 성령께서는 시메온이 구세주를 뵈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 정결례를 바치기 위해 예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정해진 율법대로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결례를 바치기 위한 제물을 바치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메온은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구세주를 만난 시메온은 자신의 평생소원이었던 구세주를 직접 만나게 되는 감동의 순간을 맞보게 됩니다. 노인이었던 시메온은 아기 예수를 두 팔에 안아 들고 하느님께 감동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루카 2,29-32)

평생 구세주를 만날 생각으로 매일 같이 성전에서 기도를 바치던 늙은 예언자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 시메온은 아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예수가 지닌 구원자로서의 삶과 고통에 관해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반대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어머니의 가슴이 칼에 꿰 찢리는 고통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것임을 예언합니다. 가장 축복받을 은총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받은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봉헌 역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축하와 축복의 순간에도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예수. 그분의 삶에 비추어 우리 자신도 겪게 될 고통과 죽음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거룩한 교회는 성무일도의 끝 기도에서 매일 밤 자기 전에 바치는 기도로 이 늙은 예언자의 기도인 ‘시메온의 노래’를 바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떤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 후렴구를 통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해 주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주님 봉헌 축일은,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의 부모가 당신의 어린 아들을 하느님께 정결하게 바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봉헌된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님 봉헌 축일이 단순히 축성된 생활을 수행하는 성직자나 수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봉헌된 삶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하느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 봉헌 축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봉헌하며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봅시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구세주를 평생 기다려온 늙은 예언자였던 시메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루카 2,30) 아멘.



황창희 알베르토 신부
계산동 본당 주임

믿음의 촛불 밝히기 4_성장 편

미래사목연구소 편집부

지난 3주간 차동엽 신부님의 저서 『믿음·희망·사랑』속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믿음 편 of 마지막, 믿음의 성장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구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장의 첫걸음, 기억하라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억하라!”입니다. 이는 신명기에 나오는 처방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와 기적을 잊지 말라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때와 하느님께서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 그때 그러셨지. 그렇게 살려 주셨지.”라고 지난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예수님은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거듭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체를 모실 때,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업적이 우리 기억에서 되살아나 다시 새로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을 주님께서 통찰하셨던 것입니다.

성장의 두 번째 걸음, 들어라

두 번째 방법은, “들어라!”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를 위해 건네시는 말씀인 ‘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느님은 인류 전체를 통째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어 ‘나’를 위해서만 따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데레사, 사랑한다.”, “마리아, 사랑한다.”, “요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대일 사랑이지요.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힘내서 살아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만 건네시는 말씀이며, 이 또한 믿음입니다.

성장의 세 번째 걸음, ‘믿는 이’가 되라

세 번째 방법은, “믿는 이가 되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토마스에게 나타나하신 말씀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의 원문은 “안 믿는 이(apistos)가 되지 말고 믿는 이(pistos)가 되어라.”입니다. 믿음은 하나하나의 ‘case by case’로 믿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안 믿는 이냐, 믿는 이냐”를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믿는 이’가 될 것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것이지요. ‘믿는 이’의 눈으로 보면 다 축복이자 은총, 행복인 반면, ‘안 믿는 이’의 눈으로 보면 다 불행이자 실패, 좌절, 불평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마주하고서 ‘믿는 이’가 되어 외친 토마스의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처럼, 희망의 희년을 보내는 우리도 믿는 이의 대열에 서기 위한 걸음을 한 발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갈갈수녀님



‘촛불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정요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본당의 성소후원회를 담당했습니다. 복사단을 인솔해 서울신학교, 수원신학교, 수도회, 수녀회 등을 방문하며, 사제 또는 수도자가 되라고 독려해 왔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딸이 다가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수녀원에 입회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반대부터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내 품을 완전히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일 수도, 미대를 나와 멋진 작가가 되겠거니 하던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자로서 느끼는 성소의 기쁨보다는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위해 봉헌하는 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부모로서 막연한 걱정이 더 앞서서일 겁니다.

얼마 후 수녀님 두 분이 가정방문을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밝고 행복해 보이는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기도 끝에 딸을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고 나서 승낙하였습니다. 딸이 수녀원 입회를 한 후에도 보고 싶은 마음에 굳게 닫힌 수녀원 앞을 몇 날 며칠 서성거리기도 하고 딸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수녀원 행사에 열심히 참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제 딸을 봉헌함

김용운 알로이시오 | 가정3동 본당

어느덧 딸이 수녀원에 입회한 지 강산이 2번 바뀌어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이 부모 밑에 있던 시간보다 이제 주님께 봉헌한 수도 생활의 햇수가 더 많아져 갑니다. 딸은 소임을 충실히 잘하고 있고 가정방문 오셨던 수녀님들처럼 밝고 행복해 보이는 수녀님을 뵈 때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재작년 저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이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 간병하며, “아빠! 내가 간병하니 좋지! 봐! 내가 결혼했으면 딸린 식구에 내가 아빠를 얼마나 챙겨주겠어?”라는 말에, 제가 허허 웃으며, “그래 맞아, 우리 딸이 최고지!” 했지요.

나이 든 제게 이제 바람이 있다면, 오직 우리 수녀님의 건강입니다. 10번이나 수술했는데도 완치가 되지 않아 오늘도 저는 “주님! 소미 마리아 수녀의 손과 발을 낫게 해주셔서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아멘.”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녀님! 사랑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녀님이 되고 싶었던 제가 노틀담수녀회에 입회를 한 지도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작품을 만들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데,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실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이미 수녀원에서 입회 허가를 받았고, 졸업을 하면 바로 입회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토록 성당 일도 열심히 하고, 성소후원회에서 남들의 성소를 축복해 주시던 부모님이라 저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반대하셨습니다. 본인들도 살아보지 못한 길이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텐데, 전혀 도와 주실 수 없다는 부모님 말씀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 저와 죽을 때까지 함께할 자신이 있다면 입회를 멈출게요.” 그 말에 부모님의 반대는 눈물의 기도와 함께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철부지였던 23살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삶과 기도입니다.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는 묵주와 지금도 꺼지지 않는 기도 초... 부모님의 그 모습이 저의 수도 삶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니다. 저를

김 소미 마리아 수녀 | 노틀담수녀회

부모님의 걱정처럼 전 손목과 발목을 각각 5번씩이나 수술했습니다. 여전히 진통제로 일상을 보내지만, 한 번도 그 통증으로 저를 흔들거나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함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일상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도자였기에 볼 수 있는 시선이 아픈 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느낍니다.

저를 주님께 봉헌해 주시고, 수도자인 저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과 부족한 저를 당신의 정배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롯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나길모 콜리엘모
2020.02.04 선종



파 빠뜨리치오
1980.02.08 선종



교구청

예비신학교 고1, 고2 캠프

일시: 2/6(목)~7(금)
장소: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25학년도 예비신학교 신입생 면접

일시: 2/7(금), 8(토) 10:00 중 하루
장소: 이안나 홀, 보니파시오 대강당 중 한 곳

17차 가톨릭 약혼자 주말

일시: 5/16(금) 20:30~18(주일) 16:00
장소: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예비(신혼)부부, 사제, 수도자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노인대학 초조각 교육

일시: 3/10~6/9 매주(월) 14:00~16:00
장소: 복자 이안나 홀
참가비: 13만원(재료비 별도)
교육: 노틀담교리교재연구소
문의: 032-761-0618

교육 | 미사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 세계 사도직)

일시: 9:30~12:30 보니파시오 대강당
회비: 3만원
[제1주] 3/10(월) 소개강의 및 세속정신 없애기1: 신동규 다미안 마리아
[제2주] 3/17(월) 세속정신 없애기2: 양창우 요셉
[제3주] 3/24(월) 자기자신 알기: 정병덕 라파엘
[제4주] 3/31(월) 성모 마리아를 알고 사랑하기: 이병근 대건안드레아
[제5주] 4/7(월) 예수님 알고 사랑하기: 김연준 프란치스코
[제6주] 4/14(월) 봉헌식 및 봉헌의 생활화: 김석훈 안드레아
문의: 010-8702-5185 회장 조경희

노틀담 사순 묵상 기도모임(The 비움)

일시: 3/5(수) 19:30~20:30 매주(수) [총 6회]
장소: 노틀담수녀원(인천 계산동)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10명
문의: 010-3930-6730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려는 프로그램 [10일]
일정: 3/17~26, 4/21~30,
5/12~21, 6/9~18
장소: 강원도 홍천
비용: 1백만원
대상: 60세 이상
문의: 010-7451-9707

지혜의 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프로그램

·사순준비피정: 2/19 (수)
강사: 김재덕 신부, 한영임 회장
·성모님께 33일 봉헌
[1차] 감사피정: 2/24 (월)
강사: 이상희 지도신부, 한영임 회장
[2차] 2/26~3/30, 감사피정 3/31
장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지혜의 샘
문의: 010-3248-9705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토라, 제국, 하느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성경대학-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송봉모 신부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홍기령 교수
·단테(신곡)지옥편-배신과 우정: 김산춘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창세기 해설: 주원준 박사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2/7~10, 21~24,
3/14~17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 눈꽃산행 포함: 2/14~16, 22~24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3/1~4, 9~12, 4/2~4
생태순례: 3/17~19, 22~24, 28~30, 4/7~9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21~23, 25~27
일시: 3/1~3, 8~10, 13~16(추자도 포함),
3/18~20, 23~26(추자도),
3/29~31, 4/1~3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피정

하느님 사랑의 길(강의, 성체초배)
일시: 2/9(주일) 10:00~16:00
(9:00 미사 참석 가능)
장소: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예수의 성녀 테레사 기도학교-전교가르멜 수녀회

31기-기도를 배우고 살기를 원하는 신자
2년 과정
[화요일] 2, 4째(화) 10:00~12:30 (3/11 개강)
[토요일] 1, 3째(토) 10:30~13:00 (3/15 개강)
장소: 계산동 전교가르멜 수녀원
문의: 010-2037-9262

25년 살레시오수녀회 영성사목 프로그램

·성경 속 여성 영성강좌:
매월 둘째 주(화) 10:00~13:00
·살레시오 예방교육(신앙과 자녀교육):
매월 셋째 주(화) 19:30~21:00
장소: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문의: 010-3866-2248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일시: 2/7(금)
장소: 주안1동 지하 소성당
문의: 031-884-0533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젊은이의 희년! 수도자의 희년!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

2/9(주일) 10:00 인천교구청

청소년, 청년, 수도자와 함께
서로의 "길"을 알아가는 바·별 축제에 함께 해요.

모 집 | 일반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불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불안기간: 60년(30년 불온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이주사목부 가톨릭 진료소 봉사자 모집

대상: 의사(내과, 가정의학과), 약사

일시: 매월 4째 주 (주일)

문의: 032-765-1094

교구청 사제관 주방직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본당사제 추천서

마감: 2/18(화)

제출처: 032-765-6961 사무처

중3동 성당 관리장 모집

자격: 운전면허 1종, 전기, 소방 자격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접수: 사무실 접수, 채용시까지

문의: 032-326-6072 중3동 성당 사무실

강화꽃동네 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문의: 010-7171-9503

교구 가톨릭스카우트 모집

신앙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스카우트 활동

모집: 유치부~대학생까지 대상, 대원

문의: 010-2484-0072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일시: 3~11월(주일) 16:00~18:00[12만원x3회]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문의: 010-4598-6912

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2/14(금)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상담자 노경덕 신부

인천교리신학원 25년 신입생 모집

·정규 2년, 심화 1년 과정

·신자 교리신학교육

연1회 모집(2/13 마감)

문의: 032-830-7137(입학상담)

이론연구소 23기 신입생 모집

이론제작 및 연구 [3년 과정]-만 65세 미만

실기시험: 2/22(토), 24(월) 10:30

장소: 가톨릭출판사 신관 6층(서울 중구 종림로27)

개강: 3/4(화)

지도: 장금선 예로니모 신부

문의: 02-313-9973

상장레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 3/8~5/17 매주(토) 9:00~18:00 [10주]

·자격증반: 3/8~11/1 매주(토) 9:00~18:00 (300시간)

장소: 의정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대회의실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참조: <http://cafe.daum.net>

문의: 031-874-6272

25 산타크로체 합창단 정기연주회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 시성 기원

연주: "칸타타"와 비발디 "글로리아"

일시: 2/22(토) 17:00

장소: 엘림아트센터(청라) 엘림홀

문의: 010-9678-4201 공연·입단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도미니코 평신도회 회원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의 성인 남·녀

문의: 010-9050-8308 성소담당

순례 | 기타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 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8(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문의: 02-722-8366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3/17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3/18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4/22, 5/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5/3 동유럽 발칸 3개국 메주고리에 [15일]

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6/5 세계 올드레야 로마 대회 참가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마카오, 홍콩 성지순례

일시: 4/24(목)~27(주일) 대한항공

문의: 032-666-9385

가톨릭신문 해외 성지순례

5/6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60만원

5/9 희년 이탈리아(독일항공) [12일] 435만원

5/22 성모 발현지 피정순례 [12일] 47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가고시마 교구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미카엘 국내·외, 제주도 성지순례

4/22 다낭(성모발현지) [5일]

4/28 홍콩, 마카오 [4일]

5/25 그리스, 튀르키예 [12일]

3/11 전주, 광주

5/12 원주, 춘천

제주(추자도)순례 6명부터 출발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